

# 장성군 '청년농 창업 장려'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 2025년까지 4.5ha 200억 투입...정보통신기술 접목 재배 환경 관리 KT와 원예단지 50곳에 초고속 인터넷 구축...공모사업 유치 추진도

장성군이 청년 농업인의 스마트팜(첨단기술 농장) 창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한다.

장성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기본·실시설계 용역 보고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보고회에는 김한중 장성군수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농어촌공사 장성지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반 등 30여 명이 참석해 설계 방향과 추진 일정을 논의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스마트팜 시설을 투자할 때 생기는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시설 원예농업 재배 방법과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팜 공간을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청년에게 빌려주는 사업이다.

장성군은 국비 140억원, 지방비 60억원 등 사업

비 200억원을 들여 5ha 부지에 스마트팜을 조성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기술을 갖춘 온실은 4.5ha 규모로 구축된다. 이는 축구장(7140㎡) 6개가 넘는 면적이다. 이곳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재배 환경 관리와 생육 환경 자료 수집 등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철골형, 파이프 비닐 온실, 유리 온실, 지열-에너지 절감 시설 등을 갖춰 농업 경영비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인다.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면 관련 사업을 확장해 청년농의 정착을 돕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장성군 측은 기대하고 있다.

장성군은 오는 9월까지 한국농촌진흥연구원 등에 용역을 맡겨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기본·실시설계를 추진한다.

또 스마트팜 부지를 확정된 뒤 농업인 사업설명

회 등을 열어 지역민 참여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장성지역에는 이달 현재 52곳(22ha)의 스마트팜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딸기와 포도, 토마토, 새싹삼 등 장성 대표 작물이 첨단기술이 적용된 농장에서 재배되고 있다.

장성군은 KT와 협약을 맺고 원예 농업 단지 50곳에 초고속 인터넷 구축 사업을 추진하며 스마트팜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또 농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정부 공모사업을 따내기 위해 현장 평가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장성지역 여건에 맞는 공모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이번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위해서는 ▲농산물·재배 기술 최신 동향 조사 ▲지역특화 작물·재배기법 기획 ▲청년 농촌 보급자리 조성사업 연계 ▲청년농 선발 연관 정책사업 발굴 ▲농산물 유통·수출 판로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급변하는 기후 변화에 맞춰 미래농업 역시 혁신적인 농업기술을 필요로 한다"며 "앞서가는 일류농업 실현을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성군(군수 김한중·가운데)이 최근 군청에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용역 보고회'를 열고 오는 2025년 준공 목표로 4.5ha 규모 스마트팜 조성 방향을 논의했다. (장성군 제공)

# 화순군 "탄광 폐광해도 경도·내부 유지해달라"

### 산자부·석탄공사 등 후속 대책 회의 대체산업 발굴·근로자 재취업 등

화순군과 주민들은 화순탄광 폐광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5일 연 회의에서 경도와 내부시설 유지를 요구했다.

화순군과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폐광대책협의회, 광산발전위원회, 화순군의회 등 관계자 18명은 이날 대한석탄공사 화순사무지소(옛 화순광업소)에서 폐광 후속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화순탄광 폐광에 따라 침체 위기에 놓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폐광지역 복구, 대체 산업 발굴, 퇴직 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화순군과 지역민은 탄광 부지 매입 전까지는 경도 활용 사업을 위해 경도와 내부 시설을 유지해달라고 정부·관계 기관에 요구했다.

또 경도 보수 인력을 확충하고, 광해복구 사업을 벌일 때 화순광업소 퇴직자 고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석탄공사 소유 토지의 매입을 위한 국비가



화순탄광 폐광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5일 대한석탄공사 화순사무지소에서 열린 회의에서 화순군과 기관 관계자들이 논의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원활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가 원활하게 통과되도록 지원도 요청했다.

주민들은 광해 복구 대책을 세울 때 경도 유지와 내부 시설물 철거 등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부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화순군 의견을 반영해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과 소통이다. 광해 복구와 관련해 안전에 책

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연말까지 경도 활용계획을 확정된 뒤 복구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화순 주민 대표는 "미래 세대를 위해 화순탄광으로 발생한 환경문제를 최소화해 깨끗한 화순을 만들어 달라"며 "지역 주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나주시가 6년 만에 개방하는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 (나주시 제공)

# 나주 금성산 물놀이장 6년만에 손님 맞이

### 숲체원 공사·코로나 여파 개장 지연...다음달 23일까지 무료

나주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이 6년 만에 손님을 맞는다.

나주시는 27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정원동 806)을 무료 개방한다고 26일 밝혔다.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금성산 계곡물이 흐르는 이 물놀이장은 1만㎡ 규모로 조성됐다. 3개의 물놀이장을 갖췄으며, 텐트·돛자리를 펼 수 있는 평상 20곳, 물 미끄럼틀 1개, 샤워장, 화장실 등이 있다.

주차 공간은 총 125면을 갖췄다.

나주시는 이곳에 안전요원과 간호 인력, 상비약, 응급구호 물품을 상시 배치한다.

금성산 물놀이장은 숲체원 조성공사와 코로나 19 장기화가 맞물려 지난 2017년부터 6년간 문을 닫아왔다.

나주시는 수질 관리와 이용객 안전을 위해 하루 이용객 수를 300명으로 제한해 운영하기로 했다.

해발 451m 금성산에는 무등산, 월출산과 함께 호남 8대 명산으로 꼽힌다. 이곳에는 다보사, 심향사, 태평사 등 전통 사찰이 있다.

금성산 자락에 있는 국립나주숲체원은 올해 전남도 대표 웰니스(치유관광) 명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 2020년 11월 개관한 숲체원에서는 전통차 시음(다도), 숲길 걷기·명상, 숙박 체험(누리집 사전 예약) 등 산림 휴양을 즐길 수 있다.

물놀이장 개장 기간에는 매주 금요일 나무 명패 만들기를 하고 주말에는 각종 공예·천연염색 등 다양한 체험을 진행한다.

운병대 나주시장은 "6년 만에 개장하는 물놀이장 이용에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과 위생,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천혜 경관과 맑은 숲 공기가 가득한 나주의 진산인 금성산에서 무더위를 식히고 일상 충전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장성 귀농·귀촌 지원 '디지털타운' 조성

### 내년 3월까지 10억 투입 SNS·메타버서서 정보·체험 공유

장성군은 내년 3월까지 귀농·귀촌을 지원하는 '디지털타운'을 조성한다고 26일 밝혔다.

장성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귀농·귀촌 지원 디지털타운 조성 사업 보고회를 열고 함께 사업을 꾸릴 주민참여단을 발족했다.

귀농·귀촌 지원 디지털타운은 국비를 포함해 총 사업비 10억원이 들어간다.

귀농·귀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소셜미디어(SNS) 서비스를 제공하고, 귀농·귀촌 지원을 받을 가상공간(메타버스)이 구축된다.

이 가상공간에서는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는 다

른 지역민들이 장성에서의 귀촌 생활을 체험할 기회를 줄 예정이다.

마을 대표 등으로 구성된 주민참여단은 주민 공감대를 만들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귀농·귀촌 지원 디지털타운과 관련한 사업안을 발굴하고 제안할 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귀농·귀촌 지원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행복하고 활기찬 농촌, 살고 싶은 장성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 강진군 '착한가격업소' 8곳 추가 지정

### 위생 등 5개 분야 평가...다음달 최고 200만원 시설개선 지원

강진군이 '착한가격업소' 8곳을 새로 지정하며 총 13곳으로 불어났다.

강진군은 저렴한 가격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8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강진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진군은 지정 업소에 인증 표찰을 주고 현판을 달아줄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는 '강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다.

강진군은 지난달 9일부터 2주간 '2023년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공고'를 냈다. 이후 강진군 물가 감시 요원과 함께 업소를 직접 찾아 업소의 상품, 가격, 위생·정결, 이용 만족도, 공공성 등 5개

분야 적합도를 평가했다.

강진군은 다음 달 지역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시설개선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지원 금액은 최고 200만원까지이다.

강진군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소상공인의 세부 신고부터 창업 안내, 판촉 지원 등 행정 지원을 펼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 속에서도 물가안정과 친절한 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나주시, 저탄소 벼 재배 기술 시연

### '케이-라이스벨트' 평가회...아프리카 8개국에 농업기술 보급 사업



지난 25일 동강면 옥정뜰에서 열린 '케이(K)-라이스벨트 저탄소 벼 재배기술 현장 평가회'에서 참석자들이 저탄소 벼 재배기술을 확인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가 지난 25일 동강면 옥정뜰에서 저탄소 벼 재배 기술을 선보였다.

이날 동강면 옥정뜰에서 열린 '케이(K)-라이스벨트 저탄소 벼 재배기술 현장 평가회'에는 운병대 나주시장과 농촌진흥청, 들녘경영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케이-라이스벨트'는 아프리카 8개국의 벼 종자 생산체계 향상을 위해 품종 보급, 농업기술과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기술을 선보인 ㈜G금강은 이날 '견답적파 기술'과 '무씨래 이앙기술'을 발표했다.

이들 재배 기술은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균평 작업을 통해 농작업 효율성을 높여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리시설이 부족해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견답적파 기술은 마른 논에 마른 종자를 파종·재배하는 방식이다. 기계 이앙 방식 대비 약 30%의 노동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국립식량과학원과 공동 개발하고 있는 무씨래 이앙 기술은 논바닥을 고르는 씨레질을 생략할 수 있어 기존 대비 약 36%의 메탄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케이-라이스벨트 사업 대상 아프리카 국가는 가나,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세네갈, 우간다, 카메룬, 케냐 등 총 8개 국가이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